데스크 시각

백기완 선생과 학림다방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삐그덕대는 계단을 올라 낡은 나무문을 밀고 들어섰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에, 진한 커피 향도 함께 흐른다. 지난해 가을, 10여 년 만에 다시 와 본 이곳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낡은 탁자와 의자, 가득 꽂혀 있는 LP 디스크,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흑백사진 등등.

그런데 이날은 예전과는 다른 풍경 하나를 만날 수 있었으니,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백기완 선생의 모습이었다. 그날도 백기완 하면 떠오르는, 갈기 같은 흰머리와 한복 차림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함께 간 친구가 백 선생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고 일러준다. 우리 세대에게 '백기완'이라는 이름은 강렬하다. 보자마자 경외감이 들었고, 연설을 하던 그 칼칼한 목소리도 생각났다. 차를 마시는 사이사이 자주 백 선생에게 눈길이 갔다. 더불어 서울에 다니러 올 때마다 이곳에서 자주 커피를 마셨던 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백 선생을 만난 곳은 서울 대학로 찻집 '학림다방'이다. 1956년 문을 연 이 곳은 지성인들의 사랑방이자 문화계 인사들의 단골 다방이었다.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학림다방 30년-젊은 날의 초상' 전 기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백 선생 사진을 보고 그날을 떠올렸다. 1987년 학림을 인수한 이충열씨는 중고 라이카 M6 카메라로 손님들을 찍어 왔다. 사진전에는 김민기, 고(故) 김광석, 젊은 시절의 연극배우 송강호 사진 등이 전시됐다. 이씨는 전시회 서문에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촬영했으면 지금쯤 우리나라 근대 인물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의 기억을 저장하는 법

이달 초 광주 양림동에서 열린 '안녕, 은성유치원' 전도 흥미로웠다. 쥬스컴퍼니 '양림 기억창고 프로젝트' 두 번째 기획으로, 1975년 개원해 4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후 몇 년 전 문을 닫은 은성유치원을 추억하는 이벤트다. 왕관 쓰고 생일잔치 하는 모습 등 졸업생들에게 기증받은 사진이 여럿 전시됐다.

내가 이 기획에 주목했던 건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는 일'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던져 주기 때문이었다. 전시 주인공은 특정 유치원이긴 했지만 바로 오래된 주택과 골목길, 서점, 시장, 분식점 등 지금은 사라졌고, 앞으로 사라질 우리들 '추억의 공간들'의 대명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작별인사라도 나누는 의식을 통해 그 공간을 기억하고, 사람을 기억하는 일의 소중함을 서로 나누는 기획들이 많아졌으면 싶었다. 다행히 은성유치원 자리엔 상업시설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을 모토로 한 복합문화시설이 문을 연다. 그래서 전시 제목에 붙은 '안녕'은 지난 시절에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시절을 맞이하며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도 보인다.

지난달 문을 연 광주계림미술관은 '기억이 축적된 공간'이다. 1947년 지어진 집과 가게는 네 번의 증개축 과정을 거치며 만화가게로, 자개농방으로, 중국집으로 사용되며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전시장은 자개농방으로 영업을 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아파트에서 주워 온 자개로 문을 만들고, 낡은 가정집 느낌 그대로 바닥도 살렸다. 미술관은 계속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삶의 공간을 기억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공동체를 꿈꾸며 공간을 마련했다.

며칠 전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고전음악감상동우회'의 40주년 기념 이벤트. 이날 20여 년 만에 감상회에 참석했던 한 회원은 정말 오랜만에 '베토벤'에 들렀다가 오랜 벗들을 만났다. 38년간, '늘 그 자리에' 베토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림'이나 '베토벤'처럼 처음 그 자리에서 원형의 모습을 지켜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 '공간이 축적해 온 기억'을 풀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억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파트공화국이 되어 가는 요즘의 광주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보세요 건설회사 대표님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아파트는 1125단지 41만 8546세대, 시공 중인 아파트는 57단지 2만 9594세대에 달한다. 올 초 확정된 광천동 재개발은 광주 최대 규모로 62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한다. 그만큼 과거의 역사와 흔적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셈이기도 하다. 당장 5·18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들불야학의 역사가 서린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건설회사 대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단지를 조성할 때 '기억의 공간'을 함께 만들면 어떨까. 재개발로 사라져 가는 계림동의, 풍향동의, 광천동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 말이다. 동네 주민, 문화 기획자들과 머리를 맞대 아이디어를 짜고 자료를 수집해 '오래전 광주'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창고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공간이 없으면, 시간은 어디에 기억될 것인가'. 학림다방 이충열씨의 사진집에 소설가 정찬이 쓴 서문의 제목이다.

/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광주 대표 도서관 당선작에 대한 우려와 기대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

건축 명품을 얻기 위한 '광주 대표 도서관' 국제 현상 공모가 있었다. 응모 접수는 61개국 817개 팀이 등록했다. 그중 한 팀엔 필자도 있었다. 이후 33개국 134개 팀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필자는 접수하지 않았지만, 초기 흥행에는 성공한 공모전이었다. 외국 전문가 두 명과 한국 전문가 다섯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선정한 작품은 세르비아의 브라니슬라프 레딕(ARCVS, Serbia)의 응모안이다.

"당선작은 지표면 아래의 공간과 소각장을 연결하는 브리지를 다양한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특히 상부 브리지의 내부 공간은 도서관의 새로운 전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시설과 연계한 통합 이미지를 창출하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혐오 시설을 교육·문화 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에 들어맞는 우수한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광주시가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 2월 12일에 있었다. 필자도 현상 공모에 응모하여 공고 내용도 숙지했고, 개념 스케치를 해 봤기에 누구 못지않게 당선작에 대한 기대가 컸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높은 판단력을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 싶었다.

광주시청사 1층 로비에서 당선작과 입상 작품들의 전시가 있었다. 찬찬히 들여다봤다. 부지 해석과 공간 조직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작품들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 지어질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마음속에 한동안 교차되었다. 필자의 시선으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 당선작만 본다면 미완성으로 보인다. 광주 대표 도서관은 상무소각장 전체 부지의 일부인 1단계 부지에 건립되는 것이고, 소각장 공장동이 위치한 곳은 2단계 사업으로 차후 프로그램에 의해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지침엔 '전체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 아이디어를 통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 경계선을 제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선작이 보여주는 도면과 투시도는 1단계, 2단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완결형이 될 것 같다. 소각장 공장동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도서관 부분의 형태 디자인과 도면 내용을 본다면 미완성으로 느껴진다.

둘째, 당선작처럼 완성될지 의문이다.

현상 설계는 기본 개념과 구상안을 제안하는 것이기에 일부 미비한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1단계 구간의 당선작만 들여다보면 보완할 것이 많아 보인다. 기둥도 없는 엄청난 켄틸레버 구조물에, 피난에 필요한 법적 계단도 보이질 않는다. 즉 구조와 피난, 설비와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변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한다면 현재 도면과 투시도가 보여주는 내외부 모습, 특히 외부 분위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당선작과 추후 완성 건물에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셋째, 2단계 설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가?

광주시는 당선작에 대해 "기존 시설과 연계한 통합 이미지를 창출하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취지에 들어맞는 우수한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다. 다른 응모안들과는 달리 유독 당선작만 2단계 사업인 소각장 공장동의 계획안이 강하게 제시되었고, 공장동의 디자인이 함께 있어야 그럴듯한 계획안으로 보인다. 즉 2단계까지 동시에 완성되어야 완결형의 형태 구성이 되고, 동선 체계가 될 것 같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완전 별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2단계 사업도 지금 동시에, 현 도서관 당선자와 추진해야 하는가? 그래야 통합 이미지를 창출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체 설계가 되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필자의 시선에 불과하다. 설계를 관리하는 행정에서 국제 현상 공모를 하게 된 근본 취지를 살려 당선된 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잘 다듬어지면서도 제시된 기본 콘셉트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 문화 자산이 될 건축물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주, 설계자, 심사위원, 시공자 등의 실력과 사명 의식은 물론이고, 행운도 따라야 문화 자산이 될 건축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광주 대표 도서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창의적인 공간, 기억될 만한 멋진 형태,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져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기 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류문영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새해 벽두부터 여기저기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때문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된 만큼 지역 사회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공식 발표가 나지도 않은 확진 환자에 대한 루머나 동선 등이 SNS를 통해서 '카더라' 형식으로 남발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선거 당시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횡행했는데, 주목도가 높았던 기사 20건의 SNS 이용자 참여 지수(공유, 좋아요, 댓글)를 집계한 결과 가짜 뉴스들이 주류 언론의 기사들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주된 이유로 선입견에 근거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확증 편향을 들고 있다. 누군가 악의로 허위·가짜 정보를 퍼뜨려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는 인터넷·모바일·SNS 덕에 더 빠른 속도로, 인공 지능(AI)의 발달로 더욱 정교해진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역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후보자 및 정당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허위·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도 깊어질 것이다.

최근 유튜브와 광장 정치의 활성화로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선거가 세대, 정파 등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횡행하는 것도 사실이다.

상대 후보자·정당 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공표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에게 약점이 없거나 상대에게 장점이 없어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잘못에 기대어 이기려는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대적 언어에 기댄 정치적 수사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고, 정책과 비전 제시를 통한 정정당당한 선거 분위기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에서의 가짜 뉴스는 유권자들도 유의해야 한다. 형태만 뉴스 형식을 취한 가짜 뉴스이든, 카더라 통신을 띤 허위 사실이든 무분별한 퍼 나르기는 자제해야 하겠다. 자극적인 화제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숨은 맥락을 읽고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홈페이지와 SNS, 한국선거방송 등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선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비방·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시 바이러스로 되돌아 가보자.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고 쉽게 퇴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 성장하거나 생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자신들이 감염시킨 세포에 기생한다. 가짜 뉴스라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모두의 면역력 향상이 필요하다. 팩트체크와 건전한 선거 정보 유통, 정책 선거 등을 통한 우리 자신의 면역력 강화와 후보자·선관위·사회 전반 모두의 대응 체제 정비를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내수 위축에 수출 타격 경제 살리기 총력을

이번 달 광주·전남 지역 수출 실적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지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광주의 자동차 수출은 4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부분 파업과 설 연휴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문제는 이달 들어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가 부족해 무려 14일간이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점이다. 이로 인해 1만 대가량의 차량 감산 피해를 입으면서 수출 역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냉장고와 석유제품 등 광주·전남 주력 수출품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 시기에 광주의 냉장고 수출은 14%포인트, 전남의 석유제품은 34%포인트 줄어드는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지역민들이 대면 접촉과 이동을 기피하면서 음식업·유통업·관광업 등 내수 경기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매출 감소로 휴업을 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속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이달 들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6월 수준으로 급락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 같은 지역 경제의 타격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비비와 추경 예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이러한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예산 줄었다니

나주의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이 올해 광주·전남 지역 발전에 6개 분야 1조22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지난해에 비해 총 예산액이 2조7000억 원이나 줄었음에도 지난해 1조2281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 계획을 제시한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공기업의 지역 발전 예산은 2년 연속 감소했다. 17개 혁신도시 기관의 올해 광주·전남 지역발전 사업비는 1조2215억 원으로 지난해 사업비(1조2281억)에 비해 66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들 기관의 지역발전 예산은 1조2324억 원(2018년)→1조2281억 원(2019년)→1조2215억 원(2020년)으로 2년 연속 줄고 있는 추세다.

농업 관련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예산(4조984억 원)을 집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지역발전 예산으로 327억4200만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역발전 계획 추진 실적 금액인 448억3500만 원에 비해 121억 원 모자란 액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무려 63.4% 감축했다. aT가 올해 배정한 지역발전 예산은 83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226억7100만 원)보다 143억6300만 원이나 줄었다. 한국전력거래소도 27.5% 줄인 65억3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우정사업정보센터·방송통신전파진흥원·국립전파연구원도 20% 이상 감축했다.

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조성됐다. 이곳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당초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늘 되새겨야 한다. 물론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발전 예산이 줄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베드로 지파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신천지교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탓이다. 25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893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자는 501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확진자 9명 중 4명도 신천지 신도다.

외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를 주목하면서 '비밀스러운 기독교 집단' '논란이 많은 종교 단체'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염병에 취약한 예배 방식과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가 코로나 확산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신천지가 2018년 우한에 잠입을 시도했지만 공안에 발각돼 퇴출됐다며 신천지를 집중 조명했다.

신천지는 1984년 이만희가 창설한 신흥 종교다.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으로 경기도 과천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2개 지파를 운영 중이다. 예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따 지파를 만들었는데 광주·전남은 베드로 지파다. 베드로는 예수가 가장 사랑한 제자로 열두 제자의 리더 격이다.

광주·전남이 베드로 지파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최대 규모의 신도(5만여 명, 전체의 2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 지파는 1987년 광주 풍향동에서 창립 예배를 시작한 후 중흥동과 광천동을 거쳐 1999년 오치동에 자리 잡았다. 2014년부터는 매년 단일 지파 최다 신도 배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6년간 3만여 명의 신도를 배출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광주·전남은 신천지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인데도 지역 방역 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신천지 측의 비협조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서울시가 신천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어길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경기도가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제 정부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넘겨주기로 하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늦은 대응이지만 철저한 조사로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면 한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